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 AFL-CIO, 산재사망사고 보고서 발간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는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산재사망사고를 분석한 '작업장 사망보고서(Death on the Job report)'를 발표했다.

## 주요내용

AFL-CIO가 발표한 산재사망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 법으로 제정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은 수천 명의 목숨을 지켜왔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작업장의 안전을 향상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고 있다.

## 미국 산재사망 현황

2012년 사업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미국인은 4,600명에 이르며, 작업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거의 50,000명에 달한다. 산재 사망사고가 다발해 가장 위험한 주로 꼽힌 곳은 북 다코타주다. 북 다코타주의 사망 10만인율은 국가 평균 3.4의 5배가 넘는 17.7을 기록했다. 북 다코타주에 이어서는 와이오밍(12.2), 알래스카(8.9), 몬타나(7.3), 서버지니아(6.9)가 위험한 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안전한 주는 메사추세츠(1.4), 로드 아일랜드(1.7), 코네티컷(2.1) 순으로 뉴햄프셔와 워싱턴 주가 각각 2.2로 뒤를 이었다.